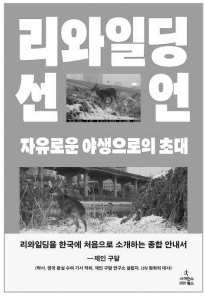


야생 동물 돌아온다...생태계가 살아난다

리와일딩 선언:

자유로운 야생으로의 초대
김산하 지음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872년 탄생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이곳에 살던 늑대는 1914~1926년 사이 최소 136개체가 사냥되었고, 마지막 늑대는 1926년 사살됐다. 늑대의 빈자리가 끼친 영향은 컸다. 엘크 수가 많아지면서 사시나무, 미루나무 군락이 쇠퇴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은 1995년 다시 늑대를 옐로스톤으로 불러들였고, 2024년 현재 124개체가 10개의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다. '돌아온 늑대'가 물고 온 생태적 효과는 예측을 뛰어넘었고 사람들은 '야생'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는 언제가부터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격년으로 발간하는 지구 생명 보고서 '리빙 플래닛 리포트'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 동물군의 약 70%가 자취를 감췄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만 거의 300종에 달한다.

제인구달 연구소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가 펴낸 '리와일딩 선언:자유로운 야생으로의 초대'는 야생 동물에 흑독한 요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자연 보존 패러다임 '리와일딩(rewilding)'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종합안내서다.

제인구달은 추천의 글에서 "야생의 세계는 그 자체로도 멋지지만, 정교한 생명의 그물망을 보존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리와일딩은 지구의 큰 부분을 자연의 재생을 위해 할애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돌아오도록, 멸종 위기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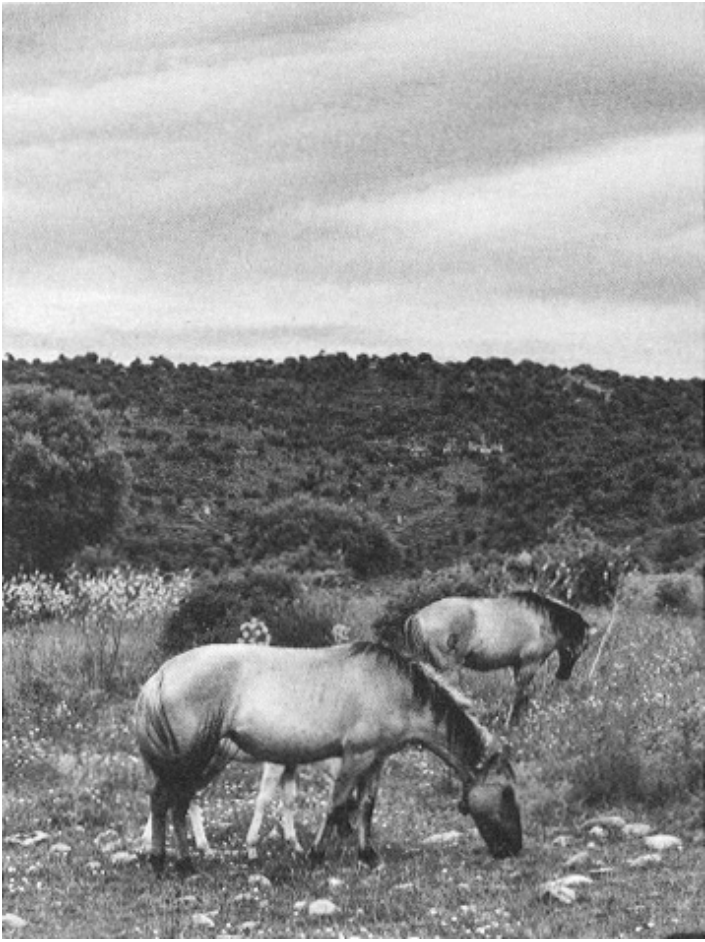
이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영장류학자로 김팔원송이의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 2년간 밀림에서 지낸 이야기를 담은 '비숲'을 펴낸 저자는 이번 책에서 리와일딩의 의미와 의의, 역사와 최신 연구, 해외와 국내 사례 등을 세세히 소개한다.

재야생화, 다시 야생으로, 야생의 귀환, 활성화로 번역되는 리와일딩의 역사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창기 운동의 구호는 이른바 '3개의 C'로 불리는 핵심지(core), 통로(corridor), 포식자(carnivore)였다. 안전한 핵심 지역이 포함된 넓은 면적의 서식지, 그 서식지들 간의 긴밀한 연결,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를 비롯한 핵심종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온 이들이 '글로벌 리와일딩 연맹'을 발족했고 지난 2021년 3월 20일을 시작으로 '세계 리와일딩의 날'을 매년 운영한다. 현재 125개국에 소속돼 있으며 생명 다양성재단 등 약 240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는 흥미롭다. '멸종의 상징' 도도새가 살았던 아르카 모리셔스 섬의 코끼리거북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식물생장이 저해되자 정부는 엘더브라코끼리거북과 마다가스카르방사거북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고, '생태계 공학자'로 불리는 비버는 생태적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복원이 시도되는 중이다. 저자가 헤크 소를 도입해 초식동물을 위한 경관의 변화를 꾀하는 '코아 벨리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



사라진 대형 초식동물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소리아마 말을 풀어 놓은 후 야생적으로 살도록 해 말들의 초식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경관을 유지하는 포르투갈의 '코아 벨리 프로젝트' 현장. <사이언스북스 제공>

문해 들려주는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또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두루미와 농민의 능동적인 공존과 그로 인한 생태적 효과에 대한 생화학 분석까지 나와있는 DMZ 사례 등 국내 리와일딩 현장도 살펴본다.

〈사이언스북스·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고양이 예찬(스테파니 오세 지음, 이소영 옮김)=보들레르, 릴케, 나쓰메 소세키가 사랑한 소파 위의 권력자, 고양이. 고양이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사유의 존재로 바라보며 문학과 예술 속에 비친 그들의 자취를 따라간다. 고양이의 우아한 독립성과 신비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지적이고 품격 있는 사유의 여정.

〈마음의숲·1만4800원〉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양소영 지음)=25년 차 변호사이자 세 자녀를 서울대·MIT로 보낸 저자의 현실 육아 기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불안을 내려놓는 것이 성격과 인성 모두를 키우는 길임을 경험으로 보여준다. 학원보다 '엄'을, 통제보다 '신뢰'를, 조급함보다 '인내'를 강조하며 부모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다릴 때 아이가 스스로 성장한다고 말한다.

〈답답·2만2000원〉

▲물은 풀고, 영원에 가까워진다(윤해서 지음)=윤해서의 두 번째 소설집. 일곱 편의 작품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오가며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탐색한다. 뚜렷한 사건 없이 흐르는 서사 속에서 인물들은 반복되는 일상과 사라진 기억을 지나며 자신을 마주한다. 물이 끓듯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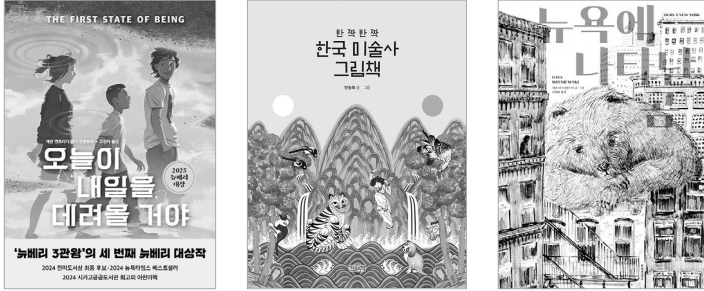
어가 진동하며 삶의 균열과 감각을 드러낸다.

〈문학과지성사·1만6000원〉

▲응! 생물학(김응빈 지음)=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이자 과학 유튜브 김응빈이 일상 속 궁금증을 생물학의 언어로 풀어낸 교양서. 개·고래·피카츄까지 넘나드는 엉뚱한 질문들을 유쾌하게 탐구한다. 복잡한 이론 대신 생활 속 과학적 사고를 전하며 '왜?'라는 물음표로 세상을 다시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창비·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오늘이 내일을 데려올 거야(에린 엔트라다 켈리 지음, 고정아 옮김)=Y2K 공포가 세상을 뒤덮던 1999년, 열두 살 마이클 앞에 2199년에서 왔다는 시간 여행자 리지가 나타난다. 불안과 죄책감 속에 살던 마이클은 리지를 통해 처음으로 '지금 이곳'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미래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를 깨닫게 하는 성장 이야기로 시간여행의 상상력 속에 외로움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았다.

〈책읽는곰·1만8000원〉

▲반짝반짝 한국 미술사 그림책(안승희 지음)=선사 시대 암각화부터 조선의 회화, 근대의 이중섭 작품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을 그림책 한 권에 담았다. 사진 대신 작가가 직접 다시 그린 그림으로, 오래된

작품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시대별 대표 유물과 화가들의 작품을 따라가며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힘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한권의책·2만2000원〉

▲뉴욕에 나타난 꿈(가야비스니엠프스키 지음, 이경혜 옮김)=지루한 일상에 갇혀 꿈을 잊고 살아가던 어른 알렉산드르 앞에 어린 시절 친구였던 곰돌이가 나타난다. "나야, 곰돌이! 난 화가가 되고 싶었잖아?" 잊고 있던 마음속 목소리가 되살아난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진짜 나를 찾고 다시 꿈꾸는 용기를 전하는 이야기. 흑백의 도시 풍경과 따뜻한 판타지가 어우러진 그림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여운을 남긴다.

〈문학과지성사·2만원〉

물리학자·철학자·심리학자가 전하는 '과학적 사고법'

넥스트 씽킹

솔 펠머터 외 지음, 노승영 옮김



범박하게 말한다면 인류의 발전과 과학문명은 사고의 산물이다.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대한 바람이 투영된 결과다.

오늘날 인류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하게 될 AI의 확산을 비롯해 환경 위기, 기후 문제, 팬데믹, 양극화, 극단적 정치 신념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왔다. 그것의 중심에는 '과학'이 자리했다. 구체

적으로 말한다면 '과학적 사고법'이 해결의 단초가 됐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가 함께 과학적 사고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을 책으로 엮어냈다. 솔 펠머터와 존 캠벨, 로버트 매쿰이 저자로 참여한 '넥스트 씽킹'은 과학을 사실을 말해주는 도구라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1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솔 펠머터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물리학 교수다. 대학에서 과학적 비판적 사고를 모티브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했다. 유럽철학 심리학회를 역임한 존 캠벨은 인지과학과 심리학에 중요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주는 장 니코드 상을 수상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프리먼스 포글리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쿰은 심리학회 제임스 매킨 커틀 연구자상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캠퍼스 공공정책·법학 교수를 지냈다.

이들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적 낙관주의를 강조한다. 지금 당장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중단하지 않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637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358년이 지나 앤드루 와일스에 의해 증명되기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 사고법, 낙관주의 태도 외에 견지해야 할 것은 연대다. 한 사람이 아닌 공동 행동을 통해 닫힌 문들이 열릴 수 있다. 오늘날은 많은 문제들이 연계돼 있으며,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다. 저자들은 사실을 공유하고 오류를 어떻게 피할지 규칙을 합의하며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위즈덤하우스·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